

무안갯벌 '블루카본의 보고' 염생식물 56종 확인

해홍나물·칠면초·유럽점나도나물 등 서식 도립공원 내 염생식물 군락 총 14만3249㎡

무안군은 최근 무안갯벌도립공원(합해만) 내 염생식물 모니터링 결과, 해홍나물·나문재·칠면초 등 56종의 염생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닷가 등 염분이 많은 땅에서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해풍이나 조류에 의해 해안선이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주요 흡수원으로서 지구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염생식물은 한반도 연안지역에

130여 종이 서식하며, 무안갯벌에는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버들명아주·유럽점나도나물·창질결이를 포함해 56종이 확인됐다.

도립공원 내 염생식물 군락은 총 14만 3249㎡이며, 칠면초 군락이 7만 95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무안갯벌도립공원은 2008년 12월 갯벌도립공원 1호로 지정돼 보전·관리되고 있으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대추귀고둥, 알락꼬리마도요·흰물떼새 등 많은 생물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갯벌 염생식물 56종의 사진 및 특징을 담은 무안갯벌 염생식물 가이드북을 발간해 생



염생식물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유럽점나도나물, 창질결이, 갯개미취, 갯방풍.

태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갯벌도립공원 1호인 무안갯벌이 체계적으로 보호와 관리될 수 있도록 철새·저서동물 등 생물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물 등 생물 모니터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완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 선발

경제교통과 조강철 팀장·건강증진과 박소영 주무관

완도군은 '적극행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을 선발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최종 심사 결과, 경제교통과 조강철 팀장, 건강증진과 박소영 주무관이 선발됐다.

경제교통과 조강철 팀장은 금강면민이 고충 녹동을 방문할 경우 배 시간과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급히 이동해야 하고,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강~고흥 녹동 간 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했다.

건강증진과 박소영 주무관은 보호자가 없는 조현병을 가진 정신



조강철 팀장(왼쪽) 박소영 주무관. 질환자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환자를 병원 입원토록 하고 치료비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을 해결했다.

군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함께 성과 상여금 한 등급 상승, 근무 성적 평정 실적 가점(0.3점), 포상 휴가(3일)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원도=이두식 기자

강진군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 근면·협동 새마을 정신 다짐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지난 15일 2022년 강진군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다시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년간 새마을회에서 실시했던 사회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영상보고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강진군새마을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강진연 군수의 격려사, 김보미 군의회 의장의 축사로 지역사회 봉사에 솔선수범해온 강진군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했다.

새마을회 운영 발전 및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표창과 읍면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명, 강진군수 표창 16명 등 총 36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읍면 종합평가로 강진읍이 최우수상, 도암면이 우수상, 마량면이 장려상을 받았다.

박종재 강진군새마을회장은 "내년에도 나눔, 봉사,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군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진연 강진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솔선수범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목포, 국비 확보 막바지 안간힘... 특교세 30억 확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해안로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사업 등

목포시가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정기적인 특별교부세 배분이 끝났지만 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끝까지 힘써 ▲목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억원 ▲해안로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 사업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반영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1월 24일 국민의회 최고위원이었던 조수

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아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로서는 체육인프라를 확충해 내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안로 배수펌프장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수증펌프의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교체가 여의치 않았다. 이번 펌프교체로 인해 집중호우 및 만조 시 발생해온

만호·동명동 일대의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청했지만 미반영된 '목포시 다목적 실내 트레이닝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기로 해 시의 2023년 국고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 시장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만호·동명동 일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각종 재난시설 확충 및 편의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군보건소, 암관리사업 평가대회 '우수기관' 표창

'동병상련 건강 이야기 맞춤형 재가암 관리사업' 시행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암센터·광주광역시·전라남도가 주관하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2022년 광주전남 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전남지역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56.6%로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암 환자에 대한 지속적 건강 관리로 암 환자의 빠른 회복을 지향하는 '동병상련 건강 이야기 맞춤형 재가암 관리 사업'을 시행해왔다.

군에서는 재가 암 환자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

며,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재가암 환자의 조기 복귀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암예방 및 암검진 사업으로도 사업을 확대 통합하는 방식으로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재경 해남북일향우회, 2022송년의 밤 성료

3년만에 개최...김강일 회장 "재경 북일향우회 발전위해 노력"



'2022 재경해남북일향우회 송년회 밤' 행사가 지난 17일 서울 반포 엘투체전벤치웨딩홀에서 김강일 회장을 비롯한 재경북일향우회 회원 및 각향각지 향우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선, 후배에 대한 감사 마음을 전하고 향우 상호간 추억과 안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특히, 이날은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반가움이 더 컸다.

김강일 회장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한결같이 달려와 주신 고향 향우님, 재경 향우님, 그리고 서울에서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재경 향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고향 발전과 재경 북일향우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 재경북일면향우회장을 역임한 김태호 재경해남향우회장은 "재경해남향우회에서도 북일향우회가 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김강일 회장의 역할이

나아가 재경 해남향우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이정현 회장은 "지난 100주년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펼쳐주신 향우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북일면에 희망을 심어주고 계신 신광호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지역 향우, 동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경호 북일면장은 축사에서 "향우 여러분의 뜻을 담아 북일면 발전에 많은 바임무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해남에서 정경호 북일면장, 김종현 이장단장, 문종필 문화체육회장, 신광호 주민자치회장, 김병학 해남북일향우회장, 육천농협장우 북일지점장을 비롯한 북일면 사회단체 등에서 대거 상경해 행사를 축하했으며 광주에서 손승기 재경북일향우회장 일행도 참석해 고향의 정을 나눴다. /해남=김동주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우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